

# K방산 선도 세계적 기관과 연대 강화

### 전북대 양오봉 총장, 록히드마틴·美 국방부 기업대학 등 방문 방위산업융합전공 설립 시 운영·인적 교류 협력 방안 도출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K-방산'을 선도하기 위해 세계적 방산기업인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 등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미국을 방문 중인 양오봉 총장이 세계 1위의 방산기업인 록히드 마틴을 비롯해 미국의 국제안보와 외교 분야의 연구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국국방대학(NDU) 등을 직접 찾아 방위산업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의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기업대학인 국방획득대학(DAU) 관계자와도 별도로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세계 1위 방위산업 기업인 록히드 마틴을 찾은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이 관계자들과 면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David K. Sutton) 국제 담당국장과의 면담을 통해 추후 방위산업융합 전공 학생들을 위한 인턴십 설치에 대해 협의하고, 공동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함께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미국의 국제안보와 외교 분야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는 신시아 쿡(Cynthia R. Cook) 방산실장 등을 만나 전북대가 구축 중인 방위산업융합전공의 운

영에 대한 협력 방안과 인적 교류 등의 협력 방안을 도출했다.

이 밖에도 출간물 공동 출판, 방학 중 전북대 학생들을 위한 단기 연수와 정 설치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신시아 쿡 실장은 최근 한국의 방위산업 성장세에 크게 주목하며 빠른 시일 내에 공동 컨퍼런스 개최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양 총장은 미국 국방대 아이젠 하워스쿨을 방문해 윌리엄 시일리 회장(William Seely, 미국 해병대 소장)을 만나 전북대 방위산업융합 전공 설립과 관련해 진지한 의견을 나눴고, 이를 통해 방위산업융합전공 설립 시 미국방대의 전문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교원의 교류, 교과과정 개발 협력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양오봉 총장은 "방위산업을 이끄는 글로벌 기업들과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또 관련 분야 국제적 기업, 연구소 및 민·군 대학 등 협력의 지평을 넓혀 기쁘다"며 "이를 통해 국내외 우수 대학, 연구소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전략산업 분야 맞춤형 인재를 우리대학이 공급하고, K-방위산업 분야 발전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서거석 교육감이 16일 화재 발생 후 6개월 만에 학교급식을 재개한 양현고등학교를 방문해 첫 급식을 함께 하며, 학생과 교직원들을 격려했다.

##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노력”

### 서거석 교육감, '식생활관 복구 완료' 양현고 방문 전북자치도교육청, 화재 복구 긴급 예산 20억원 투입

서거석 교육감이 16일 화재 발생 후 6개월 만에 학교급식을 재개한 양현고등학교를 방문해 첫 급식을 함께 하며, 학생과 교직원들을 격려했다.

양현고는 지난해 11월 식생활관 화재로 학교급식이 중단돼 6개월 동안 대체 도시락으로 위탁 급식을 해왔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20여억 원의 화재 복구 긴급 예산을 투입해 시설 및 급식기구 등을 지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화재로 인해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불편함이 컸을 텐데 학교와 교육청을 믿고 피해 교육활동 정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줘 감사하다”면서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식생활관 화재로 급식 중단됐던 양현고는 복구를 완료하고 학교급식을 재개했다. /장은성 기자

## 극성에서 전주를 생각하다

### 전주대 도서관, 지역주민 대상 인문학 강의... 김탁환 작가 초청



전주대학교 도서관은 오는 23일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학생과 지역



서거석 교육감은 16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참조나래(별관)에서 학교 밖 청소년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관계자 등 45여 명과 전북에듀페이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 도내 학교 밖 청소년들과 소통·공감

### 서거석 교육감, 전북에듀페이 주제 '만남의 날'

서거석 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교육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과 교육감이 직접 만나 소통의 장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서거석 교육감은 이날 참조나래(별관)에서 학교 밖 청소년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관계자 등 45여 명과 전북에듀페이지원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전북에듀페이는 전북교육청이 학령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보

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하면서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비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전북에듀페이(학습지원비)는 지난해 도내 고등학교단기연령인 16~18세를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는 9~18세로 대폭 확대했다. 초·중단계(9~15세) 학교 밖 청소년은 월 5만원, 고등학교 단계(16~18세) 학교 밖 청소년은 월 10만원을 바우처로 지원한다.

이 자리에 참석한 청소년은 “전북에듀페이 지원으로 비용 걱정이 줄어들

었다”며 전북에듀페이 지원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관계자는 “전북에듀페이 지원을 통해 교육감과의 만남의 자리가 만들어져 매우 뜻깊었다”면서 “앞으로도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의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인 만남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들도 당연히 전북의 청소년들이자, 우리의 미래”라면서 “전북에듀페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의 배우고자 하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응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은성 기자

## 전주비전대 산학협력기술원, 융합연구과제 선정평가회 진행

### 도내 지자체 현안·문제 해결 연구 주제들 위주 선정키로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지난 13~14일 이틀간 '2024년 지역특화 산학협력 융합연구과제 선정 평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책임자와 참여기업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 행사는 산학협력기술원에서 주관하는 '지역특화 산학협력 융합연구과제'는 기업의 수요를 토대로 혁신역량을 보유한 대학의 우수한 연구 인력과 연계해 기업과 지역사회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전주비전대학교 가족회사 및 도내·외 소재 산업체의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해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미래 수요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대학의 교원과 기업의 R&D 인력이 협력해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에 전주비전대학교에서는 매년 10



여 건의 과제를 수행해 대학이 보유한 특화 분야 원천기술 및 핵심기술이 가족회사의 제품에 반영돼 산업체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함께 산학협력 생태계 구축에 기여해 왔다.

올해는 접수된 15개의 과제 중 전북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전략과 신성장동력산업 및 대학의 특성화 분야와의 연계성, 정합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전북권 지자체의 현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주제들을 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최종 선정된 과제들은 전주비전대학

교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연구 개발이 진행되며, 2024년 지역특화 산학협력 융합연구과제를 통해 창출된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및 기술사업화 지원, 산학협력성과 포럼 등도 추진해 RISE 체계에서 산학협력혁신 선도대학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이근상 산학협력기술원장은 “산학협력 융합연구과제를 통해 그동안 많은 연구 성과가 있었으며, 지역사회에 대한 대학의 공헌은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기술사업화, 취·창업 어느 한 분야에 제한되지 않았다”며 “이번 연구과제를 시작으로 전주비전대학교의 산학협력활동의 강점을 활용해 더 많은 사업 분야에서 산업체, 지자체와의 연계·협업을 고민해 실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 AI 기반 코스웨어 '전북특별한클래스' 운영

### 전북자치도교육청, 교사 대상 설명회 개최 학생 맞춤형 교과학습 콘텐츠 활용 안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6일 참조나래 시청각실에서 '전북특별한클래스(중등)' 운영 교사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특별한클래스는 학생의 학습 수준 분석에 따른 맞춤형 학습콘텐츠를 지원하는 AI기반 코스웨어로, 중학교 1·2학년 희망 학생 1만 명에게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의 학습콘텐츠를 제공한다.

중학교 1·2학년 부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설명회는 전북특별한클래스 활용 매뉴얼 안내 및 시연을 통해 중등 기초·기본학력 향상 지원 시스템의 현장 안착을 돕는 데 목적을 뒀다.

주요 안내 사항은 △2024학년도 중등

기초·기본학력 향상 지원 시스템 △전북특별한클래스 가입방법 △과목별 클래스 운영 △AI러닝 △학습이력 관리 등이다.

이를 통해 과목별 클래스를 개설해 맞춤형 학습진도 및 수준별 문항을 제공하고, 학습 후에는 총괄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성취도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수학 과목의 경우 AI 러닝을 활용해 학생에게 가장 효과적인 학습 순서와 맞춤형 문항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을 돕는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특별한클래스는 AI를 활용한 학습수준 분석 및 맞춤형 문항제공을 통해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자치도교육청, 행동강령책임관 청렴교육

### 갑질 예방 교육 등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6일 전주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각급 학교 및 기관 행동강령책임관 등 6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과,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행동강령책임관 역량 강화를 위해 마

련됐다.

이날 교육은 △행동강령책임관의 역할 △갑질 예방 교육 등 반부패 법령 및 사례 중심 교육으로 이뤄졌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교육은 행동강령책임관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기반으로 공정한 조직 문화 정립을 위한 자리”라면서 “더 청렴한 전북교육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고교생 대입 고민, 한 자리서 해결

### 전북자치도교육청, 내일 'All in One 진학컨설팅' 운영

대입 고민을 한 자리서 해결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8일 전주대학교 스타센터에서 고등학교 1~2학년 학생 230명을 대상으로 'All in One 진학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All in One 진학컨설팅은 대입제도 변화에 따라 고등학생들이 챙겨야 할 진학 정보가 많아짐에 따라 1:1 컨설팅과 대입 특강, 대학별 상담 등을 하루에 해결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기획한 행사다.

1:1 진학컨설팅은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 진학상담팀 교사 43명이 참여해 1인당 30분씩 개인별 대입 준비

방법을 안내한다.

진학특강의 경우 전북 대입지원단 교사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강사가 대입전형별 평가 방법과 진학 준비 방법에 대해 강의한다.

상담과 함께 운영하는 대학별 부스에서는 도내 대학을 중심으로 13개 대학이 참여해 학과 체제 및 전형 계획을 안내할 예정이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진학컨설팅은 각 학교와 연계해 학생 한 명, 한 명의 진로진학 준비를 위해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라며 “오는 10월에도 한 번 더 운영해 학생들에게 깊이 있는 진학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